



## 리튬 개발권 공개입찰 진행 현황

- 리튬 개발권 공개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공정거래법원(TDLC) 심의 개시 공고(12/15)
  - Compania Minera Salares del Norte SpA(이하 ‘살라레스 델 노르테’)가 본 입찰절차는 칠레 공정거래법(DL211)과 TDLC의 과거 판례 취지에 어긋남을 주장, **입찰 절차에 대한 중지 가처분신청 및 비송(非訟)심의 요청**을 TDLC에 접수(12/10)
  - 심의 요청은 인용되어 TDLC가 경제감독원·광업부 및 관련 기업에 진술서를 요청하였고,
  - 신청자가 계약의 직접 관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**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은 기각**

### <CEOL 공개입찰 중지예 대한 살라레스 델 노르테 주장 요지>

■ 공개입찰 경쟁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건들

- ① 과도한 보증보험(Garantia) 요구 : i) 제안 진정성 보증 ii) 낙찰금 납입보증 iii) 계약이행 보증  
→ 예상 보증대상 금액 최소 US\$6.5백만(입찰금액에 따라 보증대상금액 증가 가능)
- ② 촉박한 입찰기한 : 참가업체 질의에 대한 공개답변 후 15영업일 이내에 제안 제출 마감
- ③ 불합리한 낙찰자 선정 기준 : 동점자 발생 시 제출을 더 먼저 한 쪽이 낙찰  
→ ①의 신속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대기업에 유리하며,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
- ④ 입찰참가 최소금액 US\$5백만 설정 → 진입장벽을 높이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
- ⑤ 평가기준이 편중되어 입찰금액 규모에 따라 낙찰이 좌우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음  
→ 기업이 자원회수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요인이 없어 국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

- 공정거래법에 적힌 절차에 따르면 **최소 내년 2월 이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**
  - 심의공고(12/15) 후 공청회 통보까지 35~50영업일 소요('22/1/28~2/18 예상)
  - \* 본 기간은 비송(非訟)심의절차 관련 예상소요 기간이며, 소송 시 장기화 가능성 있음
- 이와 아울러 **소규모광업연합(ASOGEMIN)·칠레리튬광업연합회의(CCML)**, 본 건 관계자 신고 및 **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접수(12/28)**
  - **(주장요지)** 본 공개입찰은 소수의 대기업을 낙찰시키기 위해 맞춤 계획된 (Tailor-made)절차로서 **자유경쟁에 반하는 바, 입찰중지 및 기한연기 필요**
  - \* 이에 대한 TDLC의 답변은 아직 게재되지 않음